

지역인재 양성 '청년미래플러스사업' 참여 열기 확산

광주경총, 관리자·재직·구직 맞춤형 교육
목표인원 300명 대비 350명 조기 신청
현직 종사자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 도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청년미래플러스사업에 대한 참여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전자 부품 산업의 청년 인재 육성과 조직 적응 지원에

성과를 거두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지역 내 자동차·전자부품 산업군 기업의 관리자 및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직 문화 개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목표인원 300명 대비 350명이 초기에 신청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세대 간 이해 증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입사한 신입 재직청년을 대상으로 윤보닝 프로그램, 직무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조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입 청년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조기 이직을 예방하는 등 기업 인력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전자부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산업 이해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더십, 비즈니스 매너, 의사소통 역량 향상 등

공통교육은 물론 산업별 직무교육과 기업 현장자 멘토링을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직 종사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직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경총은 이러한 사업 참여 열기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6월 중 신입 재직청년 및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과

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경총은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의 직장 적응과 경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확대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인쇄센터, 소공인 협업으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

연구회 운영·산학연 프로젝트 구상
비용절감 위한 라이선스 공구 추진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광주인쇄센터)는 지역 인쇄업계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소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호남 최대 인쇄집적지인 동구 서남동 일대는 90여 년의 역사와 함께 경인쇄, 제책, 제본, 후가공 등 인쇄소공인(고용인원 10인 이하 기업) 230여 개가 몰려있는 호남 최대 규모의 인쇄 집적지이다. 그러나 지역 소공인들은 영세한 형편에 ▲인건비 및 원부자재비 상승 ▲과당경쟁 및 단가하락 ▲마케팅 예산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광주 인쇄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가 지원하는 '2026 지역 소공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인 협업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서남동 인쇄집적지 공동브랜드 '인크팝(inkpop)'을 활용한 브랜드상품 개발 연구회를 운영한다. 연구회는 지역 인쇄소공인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2천만원 이내에서 연구활동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 인쇄센터는 최근 공모를 통해 2개 협업팀을 선정, 지난 5일 오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인크팝(inkpop)' 브랜드 상품 개발 지원에 들어갔다. 가람디자인, 디엔에이디자인스튜디오(우) 등 4개 업체가 참여한 '활자활짝 브랜드 활성화 연구회'는 봉제인형 키링, 마그넷 등 인쇄 기반 상

품 5종을 개발한다. 또, 리플과 엔드가 참여한 협업팀 '모어잉 그러임'은 지역문화 기반 체험형 인쇄상품 2종(보드게임, 문구세트)을 개발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광주인쇄센터는 연구회 운영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대학 및 유관기관과 산학연 협업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인쇄소공인들의 제조 원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배송용 박스 제작·구입, 라이선스 공구 구매도 추진한다. 이수림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은 "최근 지역 인쇄업계가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위축과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쇄소공인들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시장경쟁력과 매출 향상 등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젠슨 황 "AI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젠슨 황 CEO는 8일 오후 트레이드마크인 검정 가죽 재킷 차림으로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에 도착했다. 정 회장과 장재현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황 CEO를 맞이했다. 많은 직원이 사옥 입구에 몰려 환호하면서 사진 촬영과 사인을 요청했다. 한 직원은 황 CEO에게 비락식혜를 선물하기도 했다. 황 CEO는 정 회장과 함께 직원들과 기념사진과 셀카를 촬영하며 화답했다. 황 CEO는 동관에서 서관으로 이동하며 현대

차그룹의 주요 전시물과 기술을 둘러봤다. 사옥 곳곳에 모인 직원들은 환호성을 보내며 그를 맞았고, 황 CEO는 전시물을 살펴보고 "아름답다"(Beautiful), "대단하다"(Amazing)를 연발했다. 황 CEO는 로봇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식물에 물을 주는 '관수 로봇'을 본 뒤 감탄했고, 4족 보행 로봇 스콧이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자 큰 웃음을 터뜨렸다. 황 CEO는 정 회장의 안내로 기아 PV5 운전석에 앉아 설명을 들었으며, 광장에 전시된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에 대해서는 오프로드 차량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나 여기 있어 매우 행복하다. 열렬한 환영과 사랑에 감사하다"면서 "엔비디아와

현대차그룹은 미래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수준의 제조 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거물 기업이고, 모빌리티 전문가"라면서 "우리는 AI와 현대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로보틱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 AI다. AI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위해 가치 있는 일,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는 미래"라면서 "지금이 바로 현대차의 시간"이라고 추켜세웠다. 황 CEO는 정 회장에 대해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대단한 기업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CEO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건 굉장한 영예다. 엔비디아는 현대를 사랑한다"면서 양사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바다의 날'을 맞아 나주 해파란 어린이집 원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어촌·수산·해양 분야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 '어린이 어촌·수산·해양 환경교육' 실시

재활용 배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체험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지난 5일 '바다의 날'을 맞아 나주 해파란 어린이집 원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어촌·수산·해양 분야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 어촌수산처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지점이 공동 기획한 이예스(EI

SG)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바다의 날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해양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해양 환경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배우고, 폐자원으로 만든 배를 물에 띄워보는 '시냇물 경주대회'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와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환경주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지점장은 "미래세대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농협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기획이사는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노력과 함께 미래세대가 환경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2026 월드컵 공식 기념주화 8일 서울 중구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열린 '파파 월드컵 2026' 공식 기념주화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기념주화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계좌 열어보기 무섭다"...증시급락 공포

빛투·레버리지 투자자 손실 급증
신용거래용자 37조 '역대 두번째'

국내 증시가 8일 8,0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하면서 빛 투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들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추가 급락으로 특히 빛 투 내 투자했던 개인 계좌의 담보가 부족해져 주식이 강제 청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급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은 목표로 했던 수익률의 두 배가 아닌 두배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방면에 증시 추가 상승을 기대해 온 터라 이날 급락에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용

거래용자 잔고는 37조7천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 29일 38조원보다는 소 줄어들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빛 투 내 투자한 것이 많다는 의미다. 신용거래용자는 통상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하면 주식은 강제로 청산된다. 초단기 빛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마수금은 지난 5월 1조8천22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2조원에 다가서고 있다. 전장보다는 무려 5천억원이 불어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새일센터 '도배양성과정' 수료생 20명 배출

현장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8일 "2026년 여성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운영한 '도배실무 자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히고 건설·인테리어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4월8일부터 6월8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육생 20명이 40일간 총 160시간의 실무 중심 교육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도배기능사 자격취득 이론 ▲재단 및 시공 실습 ▲품질 및 마감기술 ▲현장 안전교육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이수하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습득했다. 특히 실제 작업환경을 반영한 반복 실습을 통

해 교육생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도배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했다. 한 수료생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기술이었지만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희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도배 분야는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 수요 증가로 전문기능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